

황금율 [The Golden Rule]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 27-36 흠정역

27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29 또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31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6:33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34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 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1.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분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은 '황금율 [Golden Rule]'이라고 일컫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들도 사랑하고 남이 그들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해주라고 매우 혁신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용서와 관용과 자비를 가르치는 매우 독특하고 훌륭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지난 20세기를 통하여 많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해서 많은 적국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살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를 증오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사를 보아도, 미국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거의 인종 몰살의 수준으로 죽였고, 남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북부의 반노예제도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던 비극적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들에게 원수는 누구이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것인지 성경에 바탕을 두고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설교 말씀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침이요, '죄인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구별하여 지칭한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니까? 이 가르침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 그룹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 신앙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신자들에게 주신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교회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유하게 이스라엘인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들도 있으니 우리는 잘 분별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룹은 ‘죄인들 [Sinners]’이었습니다. 원래 죄[sin]의 어원은 과녁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일컫는 단어였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분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5:32]”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입니다. 유대인들도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그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의 범주에 속합니다.

2. 크리스찬의 원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크게 혼돈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Enemies]’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원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이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수로서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멸망시키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도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통상 ‘원수[ekstros: v. 27, 35]’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지칭하셨습니다. 28절에서 ‘저주하는 자들,’ ‘악의를 품고 신자들을 대하는 자들,’ 그리고 29절에서 ‘제자들의 빵을 치는 자들,’ ‘제자들의 겂옷을 빼앗는 자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의로 가득차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원수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자비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그들이 원수같은 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자애로운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재물을 빼앗겨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재물로 원수 사랑을 나타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선함을 우리도 나타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29 또 네 빵을 치는 자에게 다른 빵도 내주며 네 겂옷을 빼앗는 자가 네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3.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는 부류는 크리스찬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1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로마 정권과 군대를 원수로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인간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로마 제국을 이용하고 계셨으며,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구출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복된 왕국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로마 제국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원수들은 다음 세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당연한 최고 통치자의 위치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탄을 추종하고 그의 편에서 그의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악령들과 인간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태 13:25, 28; 마태 22:44; 누가 1:68-71]. 이들은 종말의 시기까지 계속 사탄의 강력한 손아귀 속에 사로 잡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윤리 도덕의 올바른 기준을 파해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에서 멀리 이격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게 될 저주의 운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첫째 부류의 원수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인가요? 예수님의 황금률을 이런 자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한 부류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배척하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시도하는 바를 저지,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0 미국 대선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후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앞세우는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미국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확장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수의 부류는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컬어 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대신 오히려 저주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 3:7, 12:34, 23:33]. 이들도 아직 자비의 때가 다 가기전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이런 위선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까요? 최근에 프랜시스 카톨릭 교황이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 일로서 교황을 비판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회의 지도층을 강력히 비판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의 의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교회 내의 잘못된 위선과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층이 죄와 부패에 빠졌다면 신도들은 이를 확실히 밝히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만일 바른 회개의 행위가 없다면 그들이 사탄의 쪽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과감히 교회로부터 축출해야 하는 책임이 신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수의 부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들’로 지칭하였습니다 [로마서 5:10]. 이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주 예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눈물로 과거를 회개하면서 청산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밝은 생명의 삶을 살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우리 신자들은 사랑과 관용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현대인과 황금률

현세를 사는 크리스찬들로서 예수님의 황금률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국가의 원수(적)는 또한 개인의 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황금율을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극독한 공산주의 정권의 지도층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까? 현세를 사는 우리 신도들이 황금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여러 질문을 당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원수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민족들’로 규정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계획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민족들을 모두 ‘너희들의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하는 나라들과 그 국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수들’이며 동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원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국가의 국민이 군대에 가서 국가에서 규정한 ‘적국’의 군대를 대항하여 전투할 때에 거부감이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80번 이상이나 자신의 원수들에 대하여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과 그를 추종하는 친위대가 수년간 다윗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황금율을 이미 배웠고 이를 실천하여 사울과 압살롬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구약시대의 다윗처럼 개인의 원수들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황금율을 실천하는 데에는 다음 세가지 원칙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의 표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할 것.

둘째로, 이중적 생활을 회피할 것.

셋째로, 모든 사람에게 동정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들 [Ambassadors]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자기 본국의 정책과 가치관을 대변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정책과 가치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언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36절].

35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과거에 카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소위 ‘카톨릭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히틀러가 유대인 인종 말살을 시도했던 불행한 역사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원수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매우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 당하도록 한 장본인들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크리스찬들에게 원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으며, 사도 바울의 설명과 같이, 비록 영적인 눈이 먼 상태이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는 ‘원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23-25]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황금율을 언제까지 실천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다할 때까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의 때는 종료되고 그분의 진노의 때가 시작되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징벌의 재앙들로 복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는 수단이 아니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들일 뿐입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그 국가에 파견한 대사와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불러 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하늘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휴거의 역사를 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진노에서 지켜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